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판로 확대

무주군, 서울광장서 홍보·관측행사 개최 오늘까지 귀농·귀촌 상담도 진행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관측행사가 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시작돼 29일까지 개최된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김석중)이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며 인지도를 높여 판로확대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한우 스테이크 굽기 시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28일 개최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황의탁 전라북도 도의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소성모 대표이사 등 비롯한 내빈들과 서울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식행사와 더불어 클래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의 깨끗한 자연과 고령지 기후가 키우고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가꿔서 맛도, 품질도 으뜸인 반딧불 농·특산물 오늘 꼭 맛 보시고 많이들 사 주시라"며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구입 열풍이 이곳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어질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20:00) 사과, 복숭아, 오미자, 인삼, 청포도, 표고, 양파, 더덕, 벌꿀, 머루, 천마, 옥수수 등 1백여 개 품목(50여 단체 및 업체)의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 및 홍보, 판매, 시식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비롯한 태권도원을 비롯한 반딧불축제 홍보와 사과나무 분양, 귀농·귀촌 상담도 진행된다.

현장구매고객과 사전 발급한 쿠폰 소지 고객에게는 카페 무료이용 서비스가 제공되며 무주사과단지 사과 나무 체험 행사권과 머루와인, 사과 등 풍성한 경품도 진행된다. 또 현장에서 물품을 구입 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신청접수 부스도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17:00~19:00)에 맞춘 타임세일을 비롯해 즉석 착축(과일) 서비스와 SNS 참여 이벤트(참여 시 선물 증정)도 큰 호응을 얻었다.

회사원 최모(48, 서울)씨는 "사과랑 포도 맛보고 너무 맛이 있어서 배달 시켰다"라며 "예전에 반딧불사과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들었는데 점심시간 타임세일 황재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다"라고 전했다.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관측행사는 2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시식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비롯한 태권도원을 비롯한 반딧불축제 홍보와 사과나무 분양, 귀농·귀촌 상담도 진행된다.

현장구매고객과 사전 발급한 쿠폰 소지 고객에게는 카페 무료이용 서비스가 제공되며 무주사과단지 사과 나무 체험 행사권과 머루와인, 사과 등 풍성한 경품도 진행된다. 또 현장에서 물품을 구입 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신청접수 부스도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

보건의료원, 살처분 예비인력 대상 시인체감염 예방교육 진행

장수군보건의료원은 28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대비 살처분 예비인력 92명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 예방교육 및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AI 대응요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체감염 예방·관리 방법 및 개인 보호구

착·탈의 방법 등이 진행됐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로, 철새가 이동하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증상은 38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 및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폐렴으로 진행돼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AI 대응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AI 사전대비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가금류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총력

진안군은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최근 경기 북부권과 강원도 민통선 주변에서 야생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방지단 30명에 대해 지난 23일 야생멧돼지 포획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수업인 방역교육과 함께 폐

사체 발견 시 조치사항, 피해방지단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지속적인 멧돼지 포획을 위해 진안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피해방지단 활동을 11월 25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염병이 남하하여 총정도까지 확산 시에는 현장 통제소를 구축하고 특별 포획단 45명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사체처리 전담

반을 별도 구성하여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8일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8.~11.1.)'의 일환으로 오전 7시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무주군, 재난상황 가상해 전 공무원 비상소집

무주군은 28일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8.~11.1.)'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전 공무원을 소집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소집에 응한 3백여 명의 공무원들은 오전 7시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상황을 공유하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황인홍 군수는 "오늘 훈련의 목적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며 실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비상소집에 응해주신 열정적으로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29일 오전에는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를 가정해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무주군청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 및 토론 기반형 훈련을 진행

하며, 오후에는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대형화재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연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실천대응 능력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30일에는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며, 부족지원 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지원 공동 활용시스템 기능훈련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정수진 재난상황팀장은 "무주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군민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 시라며 "비상소집에 응해주신 열정적으로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11월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훈련 실시

진안군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대형 재난 발생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1일차인 28일에는 홍삼한방 센터에 가스가 폭발하여 건물이 붕괴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화재진압, 구조, 수습, 복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진안군청, 무진장소방서를 포함한 13개 유관기관 및 단체 250여명과 정비 39대가 참여했다. 골든타임 내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역량강화, 현

장 중심 지휘 체계 확립 등 체계형 현장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매뉴얼을 꼼꼼히 점검했다.

진안군은 이날 훈련을 위해 13개 협업부서와 무진장 소방서, 진안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컨설팅회의와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훈련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28일 전 직원 비상소집과 토론훈련, 현장훈련을 시작으로 △29일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안전캠페인, △30일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 △31일 군 청사 화재대피 훈련 등이 이어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적극행정 전 직원 교육

진안군은 28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군청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행정연구원 김신선임연구위원을 초빙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제도전반에 대해 전 직원이 공유했다.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역할도 강조됐다.

특히 공직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징계감정 확대 등 인사상 우대 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면책규정 적용 및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를 입법예고 중이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적극행정을 이해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적극행정 교육에 앞서 한국 스카우트 전북연맹 조경식 사무처장을 초빙하여 2023년 전라북도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에 따른 전반적인 대회 소개와 시군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홍보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 개최시기 여론조사 실시

장수군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와 축제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 개최시기 조정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는 매년 추석 7~10일전 개최해 많은 방문객과 높은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올해 장수 한우량 사과량 축제는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인해 축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사과 등 장수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의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장수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축제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시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축제 개최 시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